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 의** : 산업경제연구부 이지훈 연구위원  
(063-280-7146, 010-7167-2132)
- **담당본부장**: 연구본부장 이강진 선임연구위원  
(063-280-7141)

**보도시점** : 2021년11월 1일(월)부터

## **‘싼 비용으로 그린수소 생산 소비계 새만금 활용을’ 100% 그린수소만이 국가 2050 탄소중립 실현 가능 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 주도 공급 경제 혁신 3대 기저화 제시**

-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1일 ‘새만금 그린수소,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교두보로 삼자’라는 이슈브리핑을 발간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새만금을 그린수소 생산과 공급뿐 아니라 수소경제와 수소혁신 등 3가지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구원은 지난 8월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분석한 결과, 추출수소와 부생수소의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수소 수입과 그린수소 생산을 100% 사용해야만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할 수 있다며 국가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브리프에 따르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이 추진될 뿐 아니라, 다양한 혁신지원시설이 갖춰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하여 그린수소의 생산의 규모화, 활용 다양화, 혁신 지속화에 유리한 환경을 갖췄다며 국가적으로 그린수소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새만금을 보다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첫째, 국내 최대 그린수소 설비 구축 계기로 국가 그린수소 공급 기지로의 육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수요를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거나,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그린수소의 역할을 정책성 분석에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이다.
- 둘째, 새만금에 계획된 산단과 항만, 관광과 정주시설 등 다양한 기반 시설에 그린수소를 활용하여 국가 그린수소 경제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그린수소 중심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구체화하거나 입법 중에 있는 수소도시법에 그린수소 시범도시 지정과 지원근거를 포함시켜 새만금 전체 권역을 국가 그린수소경제 시범도시로 조성해 다양한 실증사업으로 국민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셋째, 새만금이 그린수소 생산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 그린수소 혁신기지 조성을 제안했다. 새만금에너지융복합단지 중점산업에 그린수소를 추가하여 관련기업과 혁신기관의 집적화를 유인하고, 그린수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자재 국산화와 판로개척 등을 위한 지원시설 구축도 정부가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지훈 박사는 “새만금 그린수소는 국가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생산되고, 값싼 비용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기술혁신에 있어 새만금을 국가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